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최나래	학번	■■■■■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바콜로드
파견대학	웨스트네그로스대학(WNU)	기간	2014. 12. 21(일) ~ 2015. 2. 14(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한시간정도 이동가능한 바콜로드라는 도시의 웨스트 네그로스대학에 파견되었습니다. 시설면은 제 경우 큰 기대없이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대학내에 있는 건물 하나에서 모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규모는 작은 편이고 공사가 진행중이라 좀 너저분한편이긴 하나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수업	수업은 총 6시간으로 문법, 발음, 작문, 토론, 대화, 표현으로 나뉘고 수업시작 하루전에 테스트를 통해 수업을 결정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수업시작시간은 9시이며 2시간정도의 공강이 점심시간 이후에 있고 나머지 시간에 수업이 배치됩니다. 보통 6시정도에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야간수업을 듣고 싶다면 1시간을 추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4과목은 1대1 수업이고 2과목은 4명에서 5명정도의 그룹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 경우 처음에는 영어가 능숙치 않아서 1대1 수업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으나 튜터들과 친해지고 나니 오히려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그룹수업보다 말할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와서 보니 큰 이 점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숙제의 경우 튜터들마다 숙제를 내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길어봐야 과목당 30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은 발음과 토론이었는데 발음의 경우 자음별, 모음별로 하나하나씩 발성방법이 수록되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토론은 그냥 생각해도 어려운 주제를 영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와 표현의 폭이 함께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Activity	루인스 -주말에 사진찍기 좋은곳이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말라는 말을 듣고 기대를 버렸으나 생각보다 예쁜 곳이었습니다. 이국적인 건물들과 주위 풍경의 조화가 볼만 했고 교통비 정도만 지불하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p>-보라카이</p> <p>3박 4일정도 다녀왔습니다. 여러 액티비티중에서 선택하여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액티비티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세일링이라는 것만 2번을 했는데 돛단배에서 바다를 가르며 여유를 느낄수 있어 좋았습니다. 파도가 있다면 나름대로의 스릴도(?)맛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해외에서 해변을 가본 경험이 없었고, 액티비티를 해본것도 처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어서 그렇게 더운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보통 30도 이내이고 자외선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썬크림은 필수입니다. 우습게 여기다가는 다 타버릴수 있습니다.비는 한국 장마오는 빈도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올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안전	개인이 안전에 조금만 유의한다면 위험한 편은 아닌것같습니다. 저희가 갔던 와중에 다른 유학생이 총기 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다니지 않고 심히 음주하여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가까운 물에도 가드가 지키고 있고 어차피 사람사는 동네라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정도입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와이파이속도는 상상이상으로 느릴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노트북으로 영화를 다운받아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다운받으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수질은 그렇게 좋은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크게 낙후된 시설도 없었고, 정수기도 있었고 청소도 일주일에 두 번 해주시고, 빨래도 일주일에 세 번정도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기타(<input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식사는 맛있는 편입니다. 학교 구내식당의 백반과 비교해볼 때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원래 과일을 잘 못먹는 편인데 매 식사시 과일이랑 고기가 꼭 나와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의 망고쉐이크와 망고플룻트와 핫케익은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가끔 새롭고 싶을 때(?)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필리핀음식이 대체적으로 달고 짭 편이라 입맛에 안맞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p> <p>음식이 달고 짜기 때문에 살이찌기 쉽다고 합니다.</p> <p>하지만, 막상 크게 찌서 돌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p>
교통	수업시간 30분 전에 벤이 대기하고 있으며 15에서 20분정도면 학교로 데

	<p>려다 주어서 굉장히 편리 합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시즌에는 운전기사 분이 빠르게 운전하셔서 좀 무섭습니다. 개인 용무가 있을 때에는 택시나 지프니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프니는 6페소로 매우 싼편이어서 정말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프니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여러명에서 택시를 타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편해서 좋습니다. 아마 비싸봐야 2500원 안팎으로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1,281,280	출국 전 사전 납부
보라카이 경비	100000	교통비, 액티비티비용 포함
기타쇼핑, 식비	600000	식비, 쇼핑, 기타개인용돈
합계	7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p>다시한번 말하지만 썬크림은 필수입니다. 일단 얼굴용이랑 보라카이 대비 바디용도 사면 좋아요. 여기서는 하루에 2번정도 바를때도 많습니다. 필리핀이 화장품품질은 한국보다 별로여서 한국에서 다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상비약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건강한 친구도 필리핀와서 아픈경우가 많았습니다. 감기약이랑 소화제 정도는 챙겨가세요. 그리고 미리 쓸 돈을 달러로 싹 다 환전해 간 다음 필요한 만큼 페소로 환전해 간다면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책을 한권 정도 사는데 좋고, 필리핀이 영문원서가 싼편이라 필리핀에서 읽으려고 굳이 한국에서 영문소설 사오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짐 챙기실때는 무게제한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액체류는 터지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터짐 경험자)</p>
--

6. 본인 소감 및 평가

<p>두달이라는 시간이 길면서도 참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대략 2주 동안은 휴일이어서 무엇을 해야할이지 몰랐는데 그런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공부하는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공간이나 수업 끝나고 남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자기에 맞는 공부를 한다면 알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시간활용면이 약간 부진</p>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기숙사안에서 공부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오기 전에는 필리핀 문화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중요성도 알지 못했는데, 막상 와보니 필리핀 문화를 아는것도 중요하고 여기저기 다녀보는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배움 이고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도 필리핀에 와서 이곳 저곳 다녔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두달의 시간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향상 되었던 부분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오기전에는 외국인에게 말하는것도 제 말을 잘 못알아들을 까 봐 꺼려지곤 했습니다. 물론 시도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1대 1로 봐 주고, 대화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하는 문장이 완벽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제대로 말도 못했지만, 수업을 하면서 그러한 강박관념이 조금 깨졌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감있게 현지인에게 영어로 물어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막바지쯤 도달했을 때 제가 영어로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기특한적도 있습니다.(그만큼 영어울렁증도 있었고 실용영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그리고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죽어있는 영어를 쓴다는점이었습니다. 모든 어학시험에서 어려운 단어들은 수도없이 보이지만, 정작 그것을 실생활에 사용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단기어학연수에 지원한다고 해서 아무노력없이 어학시험점수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수업만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물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익이나 기타어학시험을 시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흥미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달여의 기간이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기간이었고, 앞으로도 영어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하며, 영어의 흥미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튜터와</p>	<p>루인스</p>
	
<p>로드바이런 음식점에서</p>	<p>캐리비안 수영장에서</p>
	
<p>튜터와2</p>	<p>보라카이에서</p>